

시정정당인사관공무원공무원으로 상선을 초대합니다.

**임빙 디너스타 컨트리 클럽**

- 광주·동광명IC 구간 광복 동행도 관동
- (명절특별행) IC 영수증 프린트 서비스
- 우천시 9월 이후 출발요금정산제 실시
- 예약: www.hpdyashy.co.kr 0801-320-7700



13일 여수 망마경기장에서 열린 제89회 전국체육대회 육상 남자고등부 3000m 장애물 예선에 참가한 선수들이 장애물을 뛰어넘으며 힘찬 레이스를 벌이고 있다. /위직림기자 jrwi@kwangju.co.kr

■ 오늘의 히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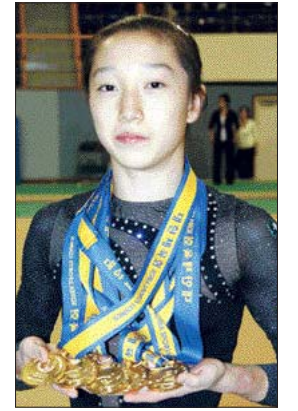
“전관왕도 가능했는데...”

체조 여고부 5관왕  
광주체고 박은경

“베이징 올림픽 선발에서 탈락된 아픔을 씻었구요. 런던올림픽에서 반드시 메달을 따겠습니다.”

13일 제89회 전국체육대회 체조 여고부 도마, 이단평행봉, 마루에서 3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며 전남 단체전과 개인종합에 이어 체전 사상 첫 5관왕에 오른 박은경(광주체고 2년)은 “평군에서 실수만 안했으면 전관왕도 가능했는데...”라며 전관왕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은경은 지난해 제88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체조 여고부 4관왕(단체, 개인종합, 도마, 이단평행봉)에 오르는데 최고의 기량을 인정받았으나 정작 베이징올림픽 선발전에



서는 탈락의 쓴맛을 봤다. 이후 절치부심한 박은경은 올해 문화관광부 장관기전관왕, 체고대항전 5관왕, 종별선수권 3관왕등 여고부 전국대회를 싸늘이 하며 일찌감치 체전 전관왕에 대한 기대를 부풀렸다.

광주 양산초등학교와 체육중을 거친 박은경은 기술적 난이도에서 세계적 수준에 접근해 있어 표현력과 근력만 보완한다면 런던올림픽에서 메달을 기대할 수 있다는 평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국가대표 꿈 이뤄야죠”

사이클 2년 연속 3관왕  
전남미용고 나아름

“2년 연속 3관왕에 올라 기쁩니다. 더욱 열심히 해서 국가대표의 꿈을 이루겠습니다.”

13일 제89회 전국체육대회 사이클 여자 고등부 20km 포인트트레이스와 2km 개인추발, 단체스프링 등에서 3관왕에 오른 나아름(18·전남미용고 3년)은 세계적인 선수가 되겠다는 야무진 꿈을 꾸고 있다. 나아름은 지난해 체전에서 이 종목에서 3관왕을 차지했다.

나주 다시 중학교를 졸업한 나아름은 다시 중 2학년 때 교사의 권유로 운동을 시작해 이듬해부터 두각을 나타냈다. 나아름은 고등학교 때부터 승부사의 본능을 드러내며



전국 최강에 올랐고, 3학년인 올해는 물오른 기량으로 기록 작성에 나서고 있다. 지구력과 순발력이 뛰어난 나아름은 파워만 좀 더 보완하면 국내는 물론 세계대회에서도 통할 수 있는 고수로 각광받고 있다. 나아름도 세계적인 선수가 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있다. 나아름은 “국가대표의 꿈을 이룰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운동선수로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 박은경 대회 사상 첫 체조 5관왕

(광주체고)

전남 미용고 나아름 사이클 3관왕 질주  
수영·육상서 ‘금맥’ 찾은 전남 3위 순항



개최지 전남이 종합3위 달성을 위해 경북과 앞치락 뒤치락 혼전을 펼쳤고, 광주는 박은경(광주체고)이 체전 사상 첫 5관왕을 달성하는 등 선전을 펼쳤다.

박은경(광주체고)은 13일 제89회 전국체육대회 4일째 여고부 체조 세부종목 도마, 이단평행봉, 마루에서 금메달을 추가해 전남 단체전과 단체전 금메달에 이어 금메달 5개를 획득하는 기업을 보였다.

2008베이징올림픽에 20년만에 자격진출해 화제를 모았던 최준상(삼성전자사마단)

은 이날 광주 영주승마장에서 열린 승마 마장마술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최준상은 지난 2002~2005년까지 전국체전 4연패 후 2006년(4위), 2007년(은메달) 이후 다시 금메달을 목에 거는 저력을 보였다.

양화성(광주체고)도 체조 남고부 도마에서 금빛연기를 펼치며 지난 11일 단체전과 개인종합 금메달에 이어 3관왕에 올랐고, 배가람(광주체고)은 체조 남고부 철봉에서 역시 금빛연기를 보여주었다.

이성(조선대)은 육상 높이뛰기 남대부에서 금메달을 따냈고, 기보배(광주여대)는 양궁 여대부 개인전에서 금빛과녁을 명중시켰다.

전남은 나아름(전남미용고)이 이날 사이클 여고 20km포인트트레이스에서 금빛질주를 펼치며 전남 2km개인추발과 단체스프링터 금메달에 이어 3관왕에 올랐다.

정다래(부영여고)는 수영 여고부 평영 2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지난 11일 평영 100m금메달에 이어 2관왕에 등극했으며 박선관(전남체육고)도 수영 남고 배영1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어 지난 11일 배영200m 금메달에 이어 역시 2관왕에 오르며 전남의 순위상승에 힘을 보탤다.

육상에서는 4개의 금메달이 터져 나왔다. 백승호(목포공고) 남고 1천500m, 정덕(나주공고) 1만m경보, 김희정(전남체고) 여고

400m, 김성호(전남체고)가 남고 멀리뛰기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했다. 한경희(순천여고)는 양궁 여고부 개인전에서 금빛 과녁을 명중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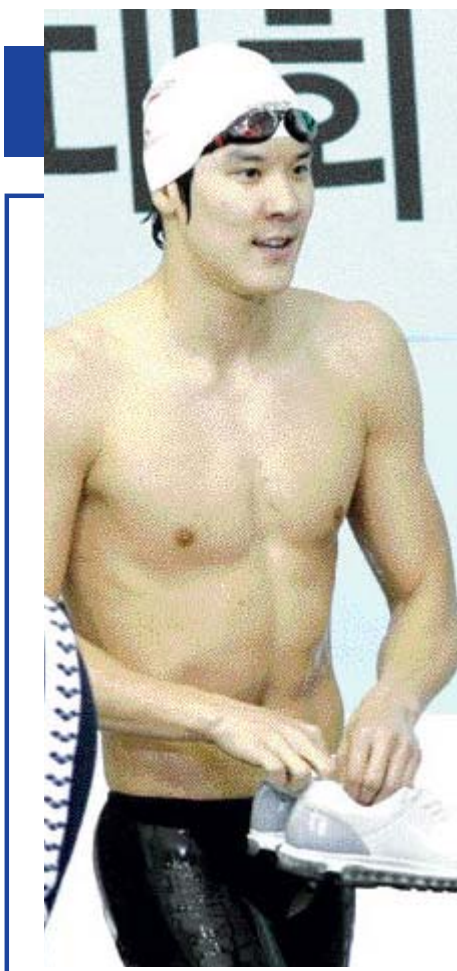
이날 현재 광주는 금메달 26개, 은메달 26개, 동메달 46개를 획득했으며 전남은 금메달 33개, 은메달 30개, 동메달 47개를 따냈다.

한편 최원희(22·원광대)는 육상 여자일반부 장대높이뛰기 결승에서 4m16을 넘어 자신이 세운 종전 한국기록(4m15)을 1cm 높여 놓았다.

한국 여자 경보의 간판 김미정(29·울산광역시청)은 육상 여자일반부 경보 20km에서 1시간29분38초에 가장 먼저 끝인, 자신의 한국 기록을 2분01초 앞당겼다.

남자일반부 경보 20km에서도 강원 대표 김현섭(24·삼성전자)은 1시간19분41초로 기존 기록을 39초 단축했다.

/여수=최재호·이종행·박영규기자 lion@kwangju.co.kr



‘마린보이’ 박태환(19·단국대·왼쪽)이 제89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이를 연속 금빛물살을 가르며 3년 연속 5관왕을 향해 순항했다.

박태환은 13일 오후 목포 실내수영장에서 펼쳐진 전국체전 수영 남자일반부 계영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 ‘금빛 행진’

수영 박태환 400m 계영 뒤집기 역영 2관왕  
윤옥희 실책으로 행운의 금메달 양궁 주현정

사격 진종오도 2관왕

400m 결승 2조에서 1번 레인을 배정받은 서울 대표의 마지막 영자로 출전해 3분24초80을 찍으며 가장 먼저 끝냈다.

전날(12일) 자유형 50m 결승에서 22초73으로 우승한 박태환은 이로써 대회 2관왕을 차지했다. 박태환의 전국체전 통산 16번째 금메달이다.

이날 경기 세번째 여자 순서에서 서울은 뒤처지기 시작했다. 서울의 3번 여자 한병서는 300m 지점에 끝안하면서 2분36초09를 기록, 2분35초20을 기록한 경기의 김광모에게 역전을 허용했다.

하지만 서울에는 박태환이 있었다. 경기의 마지막 여자 박민규와 대결에서 박태환은 이복값을 했다. 350m 지점에서 턴을 할 때 박태환은 2분59초32로 박민규(2분59

초18)를 거의 따라잡았고, 마지막 50m 구간에서 거침없이 팔을 휘두르고 발을 굴러 가장 먼저 힘차게 터치패드를 두드렸다. 1천100석 규모인 목포 실내수영장은 이날 박태환을 보려는 팬이 수영 규모를 훌쩍 넘겨 물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베이징 양궁 금메달리스트 간 대결이 펼쳐진 양궁 여자개인전 결승전에서 광주체고 출신 주현정(26·현대모비스·오른쪽)은 올림픽 윤옥희(23·예천군청)를 눌렀다.

울산 대표 주현정은 이날 순천 팔마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양궁 여자개인전 결승전에서 경북 대표 윤옥희를 110-101로 꺾었다. 두 선수는 지난 2008베이징올림픽 양궁 여자단체전 금메달을 합작했던 인연을 갖고 있어서 이번 대결은 더욱 눈길을 모았다.

베이징에서 금 총성을 울린 진종오(강원·KT)는 이를 연속 금메달을 명중시켰



다. 진종오는 13일 나주의 전라남도종합사격장에서 벌어진 사격 남자일반부 공기권총에서 본선과 결선 합계 686.5점을 싸대기 신기록으로 1위에 올랐다. 이로써 진종오는 전남 50m 권총 우승에 이어 2개의 금메달을 고취함에 안겨졌다.



‘무한도전’ 에어로빅 ‘은빛 연기’

6인조 동호인 종목서 열연

MBC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무한도전’ 멤버들이 전국체전 에어로빅 종목에 참가해 그동안 갖고 있던 실력을 선보여 눈길을 모았다.

13일 오후 영광군 해룡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에어로빅 일반부 6인조 동호인 종목에 참가한 유재서, 박병수, 정형돈, 전진, 노홍철, 정준하 등 ‘무한도전’ 여섯 멤버들은 관객의 함성 속에 혼신의 연기를 펼쳐 큰 박수를 받았다.

(사진) 멤버들은 주최 측으로부터 메달과 상장을 받았고 기념촬영을 한 뒤 밖에서 기다리던 청소년 팬들이 둘러싸여 경기를 빼져나갔다.

높이고자 이번 대회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멤버들은 기존의 코믹한 모습과는 다른 진지한 표정으로 ‘리프트’, ‘프렌치’, ‘엔딩포즈’ 등 고 난이도의 연기를 1분 30여 분 동안 펼쳤다.

경기를 끝내고 무대를 내려온 멤버들은 자신들의 연기에 만족한 듯 환한 웃음을 띠며 관객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모든 참가자들의 경기가 끝나고 나서 예술, 실기, 난이도 등 3부문으로 체결된 결과 ‘무한도전’ 팀은 16점을 받아 참가한 6팀 가운데 2등을 차지했고 멤버들은 서로 겨냥하며 자축했다.